

---

# 정책참고자료

---

2016-2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국민안전처		
	조류인플루엔자(AI)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특교세 52억 추가지원	—————	4
2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6
3	기획재정부		
	<b>2016년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b>	—————	9
4	교육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보급	—————	13
5	미래창조과학부		
	‘17개 지자체,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본격 추진	—————	28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	33
7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원산지 표시 잘하는 전통시장 선정	—————	35
8	환경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의 성과! 전국으로 확산	—————	39

9	고용노동부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_____	46
10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등 3개 지자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최우수기관 선정	_____	53
11	국토교통부		
	에너지 걱정없는 쾌적한 마을·학교 만들기 본격화된다	_____	62
12	해양수산부		
	속초 대포항, 동해안권 거점어항으로 육성	_____	66

# 1

## 국민안전처

### 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특교세 52억 추가지원

#### - 「AI대책지원본부」 운영, 현장점검, 방역 지원 등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 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AI대책지원단(단장 : 재난관리실장)」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하여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방역 및 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 「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 모든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태 확인
  - 지자체 책임관제 도입을 통한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방역활동 관리
  - 방역·살처분 부족 인력 및 장비 파악 지원
  - 기타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파견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지자체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 및 협조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을 지

원한데 이어, 이번에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총 104억)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10개반 30명)을 구성하여 12.19(월)부터 반별 2~3개 시·군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2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경상남도) 국민생각함아~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부탁해!

-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층간소음 방지대책 수립 및 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등 정책에 반영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강소정 씨) 여기가 그곳이 아니라구요?

- 강소정 씨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명칭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경험사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사례와 정책참여 소감을 이야기 함

- 금년 3월 개통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을 활용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생각함의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 공모 결과, 총 8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 행정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

쟁방지 방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

- 일반국민 부문과 전문가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은 강소정 씨(연세대)와 최미경 씨(SD.lab)는 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와 소감을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 3.0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참여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 행정기관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난 3월 28일 개통한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통 후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60여건의 안건이 게시되어 있다.



□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16. 9. 1. ~ 10. 28.
- (공모부문)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 / 국민 / 전문가
- (접수결과) 행정기관 23건, 일반국민 55건, 전문가 3건 등 총 81건
- (심사절차) 1차 서면심사(우수사례 12건 선정) → 최종 대면심사(수상자 결정)

□ 심사결과

- (1차심사) 부문별 우수사례 총 13건 선정
  - \* 일반국민 부문에서 1차 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4건의 우수사례 선정
- (최종심사)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 등 총 12건 수상자 확정

부 문	수 상	신 청 자	사 례 명
중앙 부처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촌이 스마트하게 만나는 방법은?
	우수	보건복지부	믿고 찾는 건강증진 정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산림청	'당신'의 이야기, '우리'를 바꿉니다!
지자체	최우수	경상남도	국민생각함아~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부탁해!
	우수	경기도 수원시	정책씨앗으로 정책의 꽃을 피우자
		경기도 양평군	국민참여로 만드는 양평군 전통시장 특화 방안
일반 국민	최우수	강소정 외 6인	여기가 그곳이 아니라구요?
	우수	신호섭	관보 등에 게재된 각종 공시현황에 대한 지도서비스 제공
		이상준·이혜은	빵집의 막장드라마! 출생, 사망의 비밀?
전문가	최우수	최미경	국민생각함으로 국민의 생각, 우리의 지혜 모으기!
	우수	강동선	국민참여로 만드는 양평군 전통시장 발전방향
		한우일	원룸촌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가능한 모델 만들기

##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21.(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여,
  -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 ‘지자체별 경제현안 및 대응계획’ (17개 시·도)
  -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 (전라북도)
  -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검토’ (관계부처 합동)를 논의하였다.
- 최상목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 (별첨) 2016년 시도경제협의회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도 부단체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오늘 시도경제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 】**

-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생산과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임

### 【 지자체 당부사항 】

- 지자체에서도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경기보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 우선, 내년 1월초부터 자금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자 공고 등 사전 재정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며,
- 지방공기업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수요를 적시에 발굴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전국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감염경로 차단과 방역시스템 강화 등에도  
중앙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람
- 무엇보다 농장단위 1차 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차량소독·이동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농가들의 적극 협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기 제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14개 시·도에 향후 5년간  
약 17만명의 고용과  
약 14조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14개 지자체 추정
-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법 통과를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법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음
- 각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들께 법안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맺음말씀 】

- 지금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
- 오늘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경제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보급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

-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후속조치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매뉴얼은 9.12지진 당시 일부학교의 대처능력 부족과 학교현장의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재난전문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 등 관련부처 및 현장 교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 매뉴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재난유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자연재난·사회재난·기타재난으로 분류하고 총 17개 재난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붙임1 참조]
    - ※ 기존에는 재난유형을 교육부문과 훈련부문으로 구별하고 훈련부문에는 △지진 대피 △지진해일 대피 △민방공 대피 △방사선 비상대피를 포함하였으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모두가 중요해지고 있음
  - ② 학교·교사의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구분 제시하여 활용성과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 먼저 ‘한눈에 보는 안전 매뉴얼’을 삽화(키툼 이미지)로 제시하고,
- 재난 유형별로 ‘재난의 정의 / 학교조치사항 / 학생행동요령 / 참고사항’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상황단계별 학교조치사항 및 장소·시간별 학생행동요령을 제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진 매뉴얼 구성(예시, 붙임4 참조) >

- ① 지진의 정의
- ② 학교 조치사항 - 단계별 학교조치절차 / 지진규모별 학교조치 기준
- ③ 학생 행동요령 - 교내 교육활동 중 / 실외 교육활동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
- ④ 훈련 절차 및 대피요령 - 훈련 시 점검사항 / 훈련절차 및 요령 / 후속조치
- ⑤ 참고사항 - 국민안전처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 교육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 ③ 특히, 9.12지진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진에 관한 내용은 풍부하게 포함시켰다.
- 단계별 학교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대피 이후에도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수업진행 여부,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등)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황/단계>	<조치사항>
1단계 : 안전 확보(지진발생시)	▪ 머리보호 및 책상아래로 대피 지시
2단계 : 대피(흔들림 멈춘 후)	▪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라 신속 대피지시
3단계 : 긴급대응방안 강구(대책회의)	▪ 학교장 주재로 초동대처 및 향후대책결정
4단계 : 학생안전조치(학생 후속조치)	▪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치사항 전파
5단계 : 상황반운영(상황대처·보고체계 구축)	▪ 교직원·학생 상태 파악 및 상황보고
상황종료 : 상황반 해제	▪ 상황일지 작성 등

④ 아울러, 최근 위험성이 높아진 화학물질유출사고 및 통학버스·교  
통안전 등 신종 재난·안전사고유형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  
도록 개정한 것으로,

○ 각 급 학교에서는 개정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별 상황 및 여  
건에 따라 자체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안  
전교육·훈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훈련이 실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학교현장 재난대응훈련 가이드’를 이미 배포(‘16.11.)한 바 있으며,

< 훈련가이드 특징 >

- 훈련 시 학교구성원(학교장·교직원·학생)별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예시 제공 [붙임2 참조]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학급마다 의무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치(‘16.11.)하도록 하였다. [붙임3 참조]

□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보급을 통  
해 학교현장에서 체험중심의 재난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학교구성원  
의 재난 안전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착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교육부**([www.moe.go.kr](http://www.moe.go.kr))와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 붙임
1.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비교표
  2. 학교현장 재난대응훈련 가이드 구성
  3.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지진, 화재)
  4.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지진)

□ 재난 유형의 다양화 [13개 ⇒ 17개]

<b>1 교육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폭염</li> <li>② 황사</li> <li>③ 태풍 및 집중호우</li> <li>④ 대설</li> <li>⑤ 감염병</li> <li>⑥ 식중독</li> <li>⑦ 실험실습실 안전</li> <li>⑧ 화재</li> <li>⑨ 방사능 방재</li> </ul>
<b>2 훈련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진 대피</li> <li>② 지진해일 대피</li> <li>③ 민방공 대피</li> <li>④ 방사선비상 대피</li> </ul>



<b>1 자연재난[교육 · 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사·미세먼지</li> <li>② 폭염</li> <li>③ 태풍 및 집중호우</li> <li>④ 지진</li> <li>⑤ 대설 및 한파</li> </ul>
<b>2 사회재난[교육 · 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재</li> <li>② 화학물질 유출사고</li> <li>③ 방사능 재난</li> <li>④ 해양사고</li> </ul>
<b>3 기타재난[교육 · 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응급처치</li> <li>② 통학버스 및 교통안전</li> <li>③ 민방공 훈련</li> <li>④ 폭파 테러</li> <li>⑤ 화학 테러</li> <li>⑥ 생물 테러</li> <li>⑦ 방사능 테러</li> <li>⑧ 무기에 의한 테러</li> </ul>

□ 매뉴얼 세부구성 형태

<b>1 교육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중점</li> <li>② 학생교육내용</li> <li>③ 학교/교사 조치사항</li> <li>④ 참고사항</li> </ul>
<b>2 훈련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 목표</li> <li>② 훈련매뉴얼 작성 시 고려사항</li> <li>③ 훈련 절차 및 행동요령</li> <li>④ 훈련실시 후 후속조치</li> <li>⑤ 참고사항</li> </ul>



<b>구성 변경(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의 정의</li> <li>② 학교조치사항</li> <li>③ 학생행동요령</li> <li>④ 참고사항</li> </ul>

□ 훈련가이드 구성

❖ 재난 유형별 특성에 따라 훈련방법 및 행동요령 등이 다르며, 기존 교육·훈련 매뉴얼의 참고자료로 활용 권장

- (훈련목적) 각 재난별 특성에 맞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대응역량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훈련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재난유형별 특성에 따라 훈련 가정상황 및 장소·임무역할·참여대상·훈련방법을 달리하여 구성
- (훈련내용) 학교구성원(학교장·교직원·학생)의 훈련 시 임무·역할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여 사전교육 및 사후 평가 시 활용 가능
  - (학교장·학교안전책임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를 결정하고, 교직원 임무·역할 부여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운영
  - (교직원 등)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 등 안전조치(교사) 및 시설물 긴급점검(행정실) 실시를 통한 안전 확보
  - (학생) 재난 유형별 대응행동요령 실시 및 교사 지시사항 이행

<학교구성원 별 임무·역할 체크리스트 예시 : 지진>

구분	체크리스트
학교장/ 학교안전책임관	○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른 신속한 대피를 지시한다. 대피 후 학생 및 교직원 인원파악을 지시한다. 기상청 및 국민안전처 등 재난속보에 따른 학생 안전조치를 결정한다.
교사	○ 지진발생시 머리보호 및 책상 아래로 피난을 지시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른 신속한 대피를 지시한다. 대피 후 학생 안전조치 및 보호자 조치사항을 전파한다.
학생	○ 지진발생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거나 책가방, 책, 방석,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출구를 확보하고 피난 경로를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대피 중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장소로 피한다

- (훈련 사후평가) 훈련 실시 후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보완사항 환류



교육부

##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p><b>1 지진발생 직후</b></p>  <p>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거나 책가방, 책, 방석,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p>	<p><b>2 흔들림이 멈춘 후</b></p>  <p>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피난경로를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p>
<p><b>3 대피 중</b></p>  <p>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대피장으로 피한다.</p>	<p><b>4 대피 후</b></p>  <p>대피장소에서는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p>



교육부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p><b>1 화재발생 직후</b></p>  <p>화재발생 즉시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하고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한다.</p>	<p><b>2 대피</b></p>  <p>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p>
<p><b>3 대피로가 화염에 쌓여있을 경우</b></p>  <p>대피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교실로 되돌아가 문을 닫고 옷이나 양말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한다.</p>	<p><b>4 대피 후</b></p>  <p>대피장소에서는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p>

자연재난 04

# 지진



### 자연재난

- 황사 및 미세먼지
- 폭염
- 태풍·집중호우
- 지진
- 대설 및 한파

### 사회재난

- 화재
- 화학물질 유출사고
- 방사능 재난
- 해양사고

### 기타재난

- 응급처치
- 동학버스 및 교통안전
- 민방공 훈련
- 폭파 테러
- 화학 테러
- 생물 테러
- 방사능 테러
- 무기에 의한 테러



## 한눈에 보는 안전매뉴얼

지진 발생 시 행동 방법에 관한 카툰입니다.





## 1 지진의 정의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지반이 갑작스럽게 변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2 학교 조치 사항

학교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진동을 느끼고, 창문이나 문 등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단계별 학교 조치 절차

상황/단계	조치 사항
1단계 안전 확보 지진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발생 직후 머리 보호 및 책상 아래로 대피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li> <li>▶ 출입문 개방 및 각 학급의 전원 차단(주간)</li> <li>▶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 (약품·가스·전열기 차단)</li> <li>※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li> </ul> </li> </ul>
2단계 대피 흔들림 멈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라 신속한 대피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생 대피 지시 (방송, 타종, 음성, 메가폰, 호루라기 이용)</li> <li>▶ 인솔 교사 통제 하에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중 유리파편 등에 주의하며, 다른 반과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li> <li>▶ 학교 건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은 사전에 지정된 특수교사 또는 재난대응반 구성원이 동행 대피</li> </ul> </li> <li>▶ 인솔 교사는 대피 장소 학생 질서 유지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대응</li> </ul> </li> </ul>

상황/단계	조치 사항
3단계 긴급 대응 방안 강구 대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부재시 : 하위직급순) 주재로 초동 대처 및 향후 대책 결정</li> <li>※ 긴급대피 완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동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전원 대피여부 파악</li> <li>▶ 학생 안전(장애학생 포함) 상태 파악(피해학생 여부 등)</li> <li>▶ 붕괴로 인해 갇힌 경우, 의식 확인 및 선부른 구조 금지</li> <li>※ 인명 피해 시 즉시 119 신고</li> <li>▶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건물 손상 여부 등)</li> <li>▶ 지진 규모, 진앙 확인(기상청 홈페이지·안전디딤돌 앱)</li> </ul> </li> <li>② 향후 대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진행 여부 : 정상 수업 운영, 운동장 대기, 학생 귀가조치</li> <li>▶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 보호자 인계 및 연락 방안 (전화, 문자, 홈페이지 등)</li> <li>▶ 학부모 연락 부재 시 학생 조치 사항 결정 (교내 안전구역 대기, 인솔 교사 직접 귀가 인솔 등)</li> <li>▶ 운동장 개방(지자체 협력)</li> <li>▶ 학교 재난대응반 운영사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진 및 시설 점검 후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정상 수업 실시</li> <li>※ 대책 결정 근거 : 국민안전처 및 기상청, 교육청, 지자체, 언론 등을 통한 지진 상황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li> </ul> </li> </ul> </li> </ul> </li> </ul>



상황/단계	조치 사항
<b>4단계 학생안전조치</b>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치사항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 수업 여부 전파(보호자 SNS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두절 시, 보호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학생들의 운동장대기 지속, 통신장애 복구 후 SNS 및 홈페이지 공지</li> </ul> </li> <li>▶ 귀가 조치는 명확한 안전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학생 인계 절차 준수(인솔 교사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유, 초, 중등), 수업 상황(주·야간), 보호자 인계방법 등 고려</li> </ul> </li> </ul> ① 피해학생 후송 시 담당교사 동행 및 치료병원, 치료상황 관련 수시 보고 (보고자: 학교안전책임관) ② 대피장소(운동장 또는 넓은 공터)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 교사 및 인솔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 보호</li> </ul> ③ 불안증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진행 상황 안내를 통한 학생 동요 방지 교육</li> <li>▶ 불안증 호소 학생에 대한 선조치(상담교사 인계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관할 교육청 Wee센터 협조 요청</li> </ul> </li> </ul> ④ 장애학생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여건에 맞춘 장애학생 보호 관리</li> <li>▶ 수시로 학생 상태 확인 및 보호자 연락</li> <li>▶ 특히,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 수시 확인 및 점검</li> </ul>
<b>5단계 상황반 운영</b> 상황대처 및 보고체계 구축	○ 교직원, 학생 상태 파악 및 피해 상황 보고(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피해 : 신체 피해, 불안 호소자 신고 및 이송</li> <li>▶ 시설피해 : 건물, 수도, 전기, 통신망 이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가 심각한 경우, 주민센터 신고</li> </ul> </li> <li>▶ 화재 발생 여부 확인 및 조치</li> <li>▶ 위급 상황시 교직원 간 연락체계 구축</li> <li>▶ 사건, 결정, 행동에 대한 기록</li> </ul> ○ 재난 대처 지속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종료 시까지 학생 안전 관리</li> <li>▶ 여진에 의한 추가피해 대비 철저</li> </ul>
<b>6단계 상황종료 상황반 해제</b>	• 상황일지 작성 및 대응결과, 특이사항 보고

### !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진앙에 속해있거나 진앙로부터 반경 100km 이내 위치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는 적용을 권장하되, 그 외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 단 지진 규모별 학교조치 기준은 관고사항으로 학교별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영 적용이 가능함.  
 ※ '진앙' 근처에 위치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1단계 수준일지라도 긴급적 대비하도록 권장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 미만	4.0 ~ 4.9	5.0 이상	
근무 형태	주간	· 정상 근무 · 상황 관리	· 전교직원 근무 · 대응조직 활동	· 전교직원 근무 · 대응조직 활동
	야간·주말 · 학생이 있을 때	· 관리자에게 상황보고 ·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 관리자 복귀 · 대응조직 소집 ·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 상황반 근무 · 관리자 복귀 · 대응조직 소집 ·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상황반 설치	· 미설치	· 상황반 설치(행정실) (설치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설치(행정실) · 통신장비 준비	
교육 활동	· 정상 운영	· 교육 활동 중지	· 교육 활동 중지 (피해 발생교)	
학생 안전 조치	· 대피 여부 학교 판단	· 대피 실시	· 대피 및 귀가 실시	
장애학생 조치	· 정서·심리적 안정 및 보호	· 대피부터 지원인력 동행	· 대피부터 지원인력 동행 · 정서·심리적 안정 및 보호	
보호자 문자 발송	· 기상청 문자수신 시 (규모 3.0 이상)	· 조치 사항 안내	· 조치 사항 안내	
보고	· 상황일지 작성 ·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상황일지 작성 ·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상황일지 작성 ·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3 학생 행동 요령

교내(건물안), 실외(운동장, 교외 활동) 교육 활동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행동 요령 실시

#### ! 교내(건물 안) 교육 활동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

구분	학생 행동 요령
발생 직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책상 밑으로 재빨리 들어가거나, 손이나 책·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밖으로 급하게 달려 나가지 않는다.</li> <li>▶ 책상,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는다.</li> <li>▶ 근처에 책상이 없을 때는 손이나,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li> <li>▶ 즉시 창문에서 떨어지고,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붙잡는다.</li> </ul> </li> </ul>
흔들림이 멈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를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흔들림이 진정되면 출입문부터 개방한다.</li> <li>▶ 화재를 대비해 전열기 및 전원(주간)을 차단한다.</li> <li>▶ 재난방송을 청취한다.</li> </ul> </li> </ul>
대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밖으로 대피할 때에는 손이나 책가방(책·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이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사용 중인 경우, 모든 층을 눌러 바로 내린다.)</li> <li>▶ 낙하물 및 유리창 파편에 의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대로 맨발로 이동하지 않는다.)</li> <li>▶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한다.</li> <li>▶ 인솔 교사의 통제하에 뛰지않고 질서 있게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한다.</li> <li>▶ 환자와 장애학생을 우선적으로 도와준다.</li> </ul> </li> <li>○ 교실 밖으로 나와서는 최대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운동장으로 피한다.</li> </ul>
대피 이후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지대에서는 인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및 불안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담임(인솔) 교사 및 보건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다.</li> <li>▶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하고 침착하게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li> <li>▶ 보호자 인계 등 인솔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li> </ul> </li> </ul>



1 자신의 책상 밑으로 재빨리 들어가거나, 책가방,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피난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3 대피경로로 이동 시,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운동장으로 피한다.



4 안전지대에서는 담임 및 인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 ! 실외(운동장, 교외 활동) 교육 활동 중 지진이 발생한 경우

구분	학생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과 최대한 떨어진다.</li> <li>▶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장소(운동장, 공터)로 이동한다.</li> <li>▶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인다.</li> </ul> </li> </ul>
대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흔들림이 멈추면 재빨리 주변의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붕괴 위험이나 낙하물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며 멀리 벗어난다.</li> <li>▶ 학교 외벽(담배막이) 건물보다 쉽게 붕괴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기대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므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li> </ul> </li> </ul> </li> </ul>
대피 이후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지대에서는 인솔 교사 및 주위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및 불안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인솔 교사(안내요원)에게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다.</li> <li>▶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하고 침착하게 인솔 교사(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른다.</li> <li>▶ 인솔 교사(안내요원)의 지시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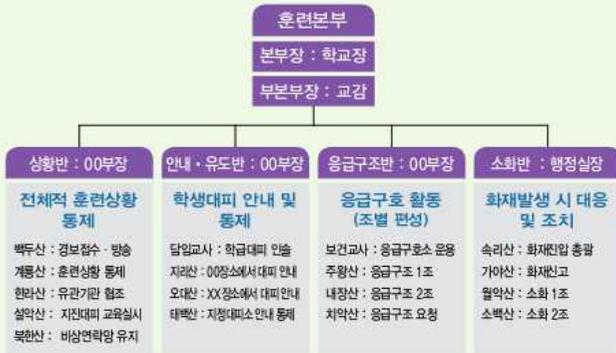
## 4 훈련 절차 및 대피요령

훈련시 점검사항 · 훈련 절차 및 행동 요령

### ! 훈련 시 점검 사항

- 훈련 실시 전 5단계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실시한다.
- 훈련 절차에 대한 사전 교직원 회의와 학생 교육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

### 대응 조직의 편성 · 운영(예)



- 상황반은 학교 내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 ※ 유관기관 : 지자체, 경찰서(지구대), 소방서(119안전센터), 군부대, 병원 응급실 등
- 안내 · 유도반은 메가폰, 호루라기, 교통신호봉, 손전등 등을 휴대(정전 대비)하고 각종 비상구(계단)와 대피소 등에서 학생 대피를 유도한다.

### 대피 장소 및 경로 지정

구분	지진 발생 시	지진 파동 종료 시 ~ 여진 발생 전
대피 장소	신체(머리) 보호 가능한 책상 밑	운동장,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

### 경로 접수 및 전파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기상청 흔들림 느낄 때	유선, 팩스	휴대전화	관할 지자체
전파(교내)	학교 내 방송	음성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 대피 훈련 및 교육 준비사항

- ➔ 재난경보 및 신호방법
- ➔ 대피절차 및 행동 요령
- ➔ 지진 시 훈련 계획(대피 순서, 경로, 장소 등)

### 훈련 소요 장비 · 물자 확보

※ 학교별 학급 수를 감안하여 소요 수량을 준비

구분	내역
대피 유도 장비	안전모, 메가폰, 호루라기, 깃발, 교통신호봉, 손전등 등
구급 장비	응급조치 세트(비상약품), 물걸, 목발, 부목 등
기타	방송장비(재난경보), 타종, 라디오 등



**! 훈련 절차 및 행동 요령**

**1 재난 경보 접수 및 전파 - 상황반**

- 각 학급의 전원 차단(교실) 및 출입문을 개방한다.
- 교실 내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한다.
  - ※ 실제 지진은 경보 전파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 전파 없는 상황으로 훈련 방향을 설정 한다.
  - ※ 학생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지진발생 시에는 근처에 보호물건(가방, 방석)이 없는 경우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도록 교육한다.

**2 대피 지시 - 흔들림 종료 시**

- 대응조치를 가동한다.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 학급별 출입문 쪽 학생부터 순서대로 복도에 정렬한다.
- 담임 교사(인솔 교사) 통제 하에 질서 있고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 다른 학급과 섞이지 않도록 대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
  -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
  - 환자와 장애학생 안전 대피 우선지원
- 층(구역) 별 안내 교사는 학생 대피 확인 후 마지막으로 대피 장소로 이동한다.
- 응급구조반은 환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한다.

**3 대피 장소에 도착 시**

- 학생 인원 파악 (전체 학생 대피 여부)
- 환자 및 장애학생 대피 여부 파악
- 피해 학생 파악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 신체적 피해 학생 응급구조반 인계 조치
  - 정신적 피해 학생 (휴먼즈 호스) Wee 클래스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조치
  - 라디오 방송 청취 (이후 진행 사항 파악)

**4 소방 및 응급 복구 활동 - 소화반, 응급구조반**

**5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상황반**

**6 대피 훈련 종료 후 안전에 유의하여 각 학급별 교실로 이동 - 안내·유도반**

**! 훈련 실시 후 후속조치**

**교육 내용 적절성 등 검토·문제점 도출 후 차기훈련에 반영**

- 대피 경로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지진 대피 훈련 절차와 행동 요령 적절성 검토
  - 학생 행동 요령 단계별 적용의 적절성
  - 예고 없는 상황에 대한 훈련 적용의 적절성
- 재난대응(방산)활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 운용의 적절성 검토
- 훈련 장비와 물자의 소요 검토
- 도출된 문제점은 교직원 회의시 공유하여 차기 훈련에 반영

**5 참고사항**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교육부)



교육부

##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p><b>1 지진발생 직후</b></p>  <p>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거나 책가방, 책, 방석,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p>	<p><b>2 흔들림이 멈춘 후</b></p>  <p>흔들림이 멈추면 문틀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피난경로를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p>
<p><b>3 대피 중</b></p>  <p>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대피장소로 피한다.</p>	<p><b>4 대피 후</b></p>  <p>대피장소에서는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p>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p><b>1 화재발생 직후</b></p>  <p>화재발생 즉시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한다.</p>	<p><b>2 대피</b></p>  <p>짧은 수건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p>
<p><b>3 대피로가 화염에 갇혀있을 경우</b></p>  <p>대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교실로 퇴돌아가 문을 닫고 옷이나 담요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한다.</p>	<p><b>4 대피 후</b></p>  <p>대피장소에서는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p>

□ 중앙부처(산하기관)

(국가기록원\_서울기록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의 업무소개와 강의를 제공하며, 기록관리에서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멘토링이 진행되며,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보존상자 만들기, 종이기록물 복원과 같은 실제 업무와 유사한 체험활용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음. 매년 모든 프로그램을 4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30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 지자체

(파주시청\_경기도) 2015년 9월부터 매주 둘째·넷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시청의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파주 홍보물제작(정책홍보), 모의예산편성해보기(기획예산), 세정과 7개 팀 선택 체험(세무행정) 등 35개의 실무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시청의 거의 모든 직군(총 21개 분야 42개부서)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시장직인이 들어간 이수증을 발급하여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공무원 진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함.

□ 공공기관

(재료연구소\_경남)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국책 연구소로, 연구소 견학, 차세대 기술 VR을 결합한 체험, 연구원과 함께 하는 멘토링 등 구체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 제작한 학생용 매뉴얼과 실습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16년 600여명의 학생들 프로그램에 참여함.

□ 대학

(한남대학교\_대전)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단순학과체험을 넘어 창업, 중학생을 위한 교육극, 고교생을 위한 건축캠프, 오감만족을 통한 두드림 전공체험, 미술속의 수학적 비밀 등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6년 6,000여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

## □ 민간기업 및 학원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민간 건축사 사무실로 공간화 체험을 통한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과정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건축가가 하는 일, 건축의 과정 등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우드락,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체험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2년부터 총 40회를 운영하여 약 1,08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포유맥시스템)** 컴퓨터 박물관 체험, 관련학과 및 직업 소개 등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200여 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역사와 인쇄의 발달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 15명 내외 소규모 체험으로 전문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며 '16년 약 27회 프로그램에 385명의 학생이 참여함.

**((주)MBC아카데미뷰티스쿨 \_대전)** 2015년 대전시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기관으로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성형메이크업, 특수분장, 스타일리스트, 네일아트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 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 복지관, 문화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50여개 학교에 무료로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교육기부취지에 부합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5

# 미래창조과학부

### ‘17개 지자체,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본격 추진.’

#### - 중앙부처 매칭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역량 배양 -

□ 미래부는 12월 20일(화),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 윤현기)를 개최하여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조정기구로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 이는 지난 9월, 지역의 자체 R&D 기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립된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7개 지자체별로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 지자체별 주요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7개 지자체별로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로 작동되도록 한다.

-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과 R&D 예산의 배분, 신규 R&D 사업은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인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R&D투자 방향 수립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매년 지역 내 R&D투자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 조정 배분 등의 기능을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17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Think-tank를 육성해 나간다.

- 서울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산재된 R&D 사업과 기획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 자체 R&D 전담관리기관을 보유한 부산·경기는 기존의 R&D 사업관리 중심

에서 벗어나 미래예측, 지역특성화전략 수립, 미래신성장동력육성 등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 자체 R&D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미래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전략 및 R&D 사업 기획 전문기관으로의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R&D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등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7개 지역에 설치된 R&D 전담기구

- 아울러, 부산·대구·울산·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의 경우, 지자체별 자체 R&D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R&D 기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셋째, 지역에 산재하는 각종 과학기술 전문기관간,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한다.

- 광주·세종·전남의 경우, 지역의 정부 출연연,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기관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울산·충북·경북의 경우 특화된 산·학·연 포럼을 구성하여 지식·기술의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 넷째, 지자체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대전·세종의 경우, 과학기술 전담부서가 여러 부서 별로 분산된 지역 과학기술업무 전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 부산·대전·전남·충북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경남·전남·전북 등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경북의 경우 R&D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지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노력을 정부 R&D 예산·배분·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 아울러,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립·착수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22)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이 중앙정부 R&D 사업의 단순한 매칭 역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역 R&D 사업·정책 전체에 대한 점검·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참고1 : 지자체별 주요 실천계획(요약)

참고2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요

## 지자체별 주요 실천계획

과제명	주요내용
<p>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방과학기술정책(사업) 심의·조정·평가 의무화(공통) - 국비·시비를 포함한 지역 R&amp;D사업 사전심의 기능강화 등(울산)</li> <li>◇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정책 안건을 발굴·상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제언 권한 강화(부산·세종·전북 등)</li> <li>◇ 지방협의회(중앙)·지역과학기술위원회(지역)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공통)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 상호 간담회 추진 등</li> <li>◇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주체 간 간담회 정례화 등 연계협력 강화 추진(전북 등)</li> </ul>
<p>② 지역 R&amp;D 기획·관리 역량 제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지원단 등 기획·관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 추진(공통)</li> <li>◇ 지역 R&amp;D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구축) 추진(울산·대구·경남 등) - 지역 R&amp;D 조사·분석 체계 개선 추진(공통)</li> <li>◇ 지역 R&amp;D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성과평가 확대 추진(부산)</li> <li>◇ 여러 기관으로 산재된 R&amp;D 사업·기획 기능 통합 추진(서울)</li> <li>◇ 23개 시·군 R&amp;D 조사·분석·평가 시범사업 추진(경북)</li> </ul>
<p>③ 과학기술 담당조직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부 주관 과학기술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확대(공통)</li> <li>◇ 과학기술 전담부서 조직개편으로 위상 및 전문성 강화 추진(대전)</li> <li>◇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매뉴얼 북 제작 추진(인천)</li> <li>◇ 과학기술 담당부서 인력증원 추진(충남)</li> <li>◇ 중앙정부와 과학기술분야 인력교류 추진(울산·경남·전남·전북)</li> </ul>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 (주요 기능)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과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17개 지자체 추천 민간위원(18명) \* 위원장은 위원 중 미래부 장관이 지명

< 지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미래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지역주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 문체부, 2017년 9개 지방자치단체에 유(U)-도서관 서비스 지원 실시 -

2017년부터 전국 9개 시·군·구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에서 24시간 책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광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와 함께 24시간 도서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U)-도서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 독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생활밀착형 24시간 도서관 서비스 제공

‘유(U)-도서관 서비스’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무인 대출·반납 기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주민들은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멀어서 도서를 대출, 반납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서비스 지역을 옮겨 줌 더 유연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북 포항시는 ‘창조도시 포항! 스마트 작은도서관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유(U)-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구축에 따른 조성비용과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시작하여 예산상의 문제로 2012년에 중단된 ‘유(U)-도서관

서비스'는 사전에 예약한 도서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엔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는 무인 도서 대출·반납 기기에 구비된 도서를 사전 예약 없이 바로 대출할 수 있는 방식을 위주로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의 자료 제공이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소장 중심에서 접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유(U)-도서관 서비스가 도서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유(U)-도서관의 서비스 지역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관원, 원산지 표시 잘하는 전통시장 선정

- 군산공설시장 등 우수시장 12곳 선정 -

### 《 주 요 내 용 》

◆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평가, 우수시장 선정·시상

○ 평가기간: '16.9.~11월

○ 평가대상: 농관원과 MOU 체결 전통시장 126개소

○ 선정결과: 12개소(최우수 1, 우수 3, 장려 8)

- (최우수) 전북 군산공설시장

- (우수) 강원 정선시장, 충남 금산인삼약령시장, 전북 익산서동시장

- (장려) 서울 우림시장, 부산 좌동시장 등 8개소

\* 농관원장상 시상 및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물품(200~500만원 상당)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6년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영예의 최우수상은 전북 군산공설시장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강원 정선시장, 충남 금산인삼약령시장, 전북 익산서동시장 등 3곳, 장려상은 서울 우림시장, 부산 좌동시장 등 8곳이 받았다.

\* (장려상) 서울 우림시장, 부산 좌동시장, 대구 관문시장, 광주 양동시장, 대전 문창시장, 경기 수원못골시장, 충북 청주가경터미널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선정은 농관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국 12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9~11월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통시장 MOU 체결 현황>**

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18	14	11	14	12	19	19	17	2	126

○ MOU 전통시장별로 소비자단체 회원을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 및 홍보활동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시장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시장상인회와 합동 캠페인 및 업체별 맞춤형 1:1 코칭, 정기적인 교육과 원산지 풋말·표시판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여 입점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농관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부진한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13년도부터 평가제를 도입, 우수시장을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 올해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눠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병행하여 1차 평가에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상위 17곳을 선정한 후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2곳을 우수시장으로 선정했다.

○ 우수시장에 대해서는 **농관원장 상장과 200~500만원 상당의 원산지 지도·홍보 물품**이 지원된다.

○ 또한, 우수시장을 **소비자단체의 견학 코스로 활용**하고, 인터넷 및 SNS 등에 **홍보**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재고를 통해 방문객과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도·홍보 물품 지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 장려 200

□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은 **푯말과 표시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눈에 띄게 매대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다며,

○ 이 평가를 통해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함으로써 매출증대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가능하며, 유효 신고에 대해 5~200만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 시장 개요

- 시장 명: 군산공설시장(전북 군산시 신금길 18)
  - \* 1919년에 개설되었으며, 군산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최초로 냉난방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지상 3층의 마트형 건물을 신축(11.12월)
- 입점업체: 211개소(농수산물 121, 음식점 8, 기타 공산품 등 82)

## □ 주요 활동현황

- 농관원 군산사무소와 군산공설시장 상인회 MOU 체결('16.2.23.)
  - (농관원) 책임담당 명예감시원(2명) 지정·운영
    - \*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상인회와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관리 의식 고취
  - (상인회) 전국 최고의 원산지 우수시장으로 육성 의지 표명
  - (농관원) 업체별 1:1 맞춤형 원산지 표시 교육 및 컨설팅(3회), 원산지 표시 지도 물품\* 제작·배부
    - \* 원산지 표시 스티커, 원산지 풋말 및 표시판 등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의 성과! 전국으로 확산

- ◇ ‘홍천’ 준공(‘15.12)후 1년! 주민수익(2억 3,400만 원)과 일자리(8명), 방문객 증가(4,000여명/년 방문) 등 기대 이상의 성과
- ◇ 올해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3곳(인제, 음성, 제주)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곳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12월 10일 준공된 후 1년 간 운영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억 9,000만원 보다 많은 2억 3,400만 원의 주민편익이 발생(333만원/년, 가구)하고 연간 4,000여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 주민편익(소득 2억 3,400만 원) : 태양광발전 8,700만 원, 난방비 절감 4,900만 원, 소수력 발전 2,600만 원, 퇴·액비 운영 5,200만 원(예상수익), 퇴비무상공급 900만 원, 그린빌리지 200만 원, 카페테리아 운영 900만 원 등

○ 또한, 이런 가시적 성과 외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현재 구상중인 추가 소득사업(꽃과 나무가 있는 체험관광마을, 유리온실 등)과 관광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

□ 조경규 장관은 이날 현장에 나온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주민들을 치하하면서 “홍천이 세계적인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소매곡리 지진수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은

“이 곳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유리온실 등 추가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인 기술과 관계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 조경규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8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과 함께 내년에도 5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2019년까지 총 13곳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흥천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5곳(아산, 청주, 영천, 경주, 양산) : 2017년 말 준공

\* 2016년 3곳(인제, 음성, 제주) : 2018년 말 준공

□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인제, 음성, 제주 등 3곳에 대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내로 착공할 예정이다.

○ 이들 3곳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지난해 선정되어 올해 6월 착공을 시작한 아산 등 5곳을 포함하면 총 8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 환경부는 인제, 음성, 제주 등 3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효과로 연간 약 21억 5,000만 원의 주민소득 향상과 150명(직접 고용 13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온실가스 1만 137CO<sub>2</sub>톤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인제군 월학리에 조성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로 발전하고 발전폐열을 활용해 파프리카 온실, 산나물·오미자 등 인제군 특산물을 공급해 연간 8억 8,000만 원의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 음성군 원당2리에 조성되는 곳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하고 발전폐열을 화훼·열대작물 유리온실과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등에 공급하여 이를 산업 체험관광으로 연계해 연간 5억 3,000만 원의 주민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 제주시 금악리에 조성되는 곳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하고 발전폐열을 활용한 애플망고 체험형 농장 · 저온저장고 등을 통해 연간 7억 4,000만 원의 주민소득이 예상된다.
  
-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주민들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었듯이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된 3곳도 폐자원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향후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부장관 홍천 방문계획.  
2.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간 운영 성과.  
3. 2016년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 행사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2월 19일 12시 예정)

<붙임 1>

## 「환경부 장관」 홍천 방문 계획

□ 개 요

- 일 시 : '16.12.19(월) 10:00~13:00(오찬 포함)
- 장 소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일원(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12)
- 참석자 : 30여명  
\* 영접 : 홍천군수, 자원순환국장, 환경공단 본부장,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

□ 세부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30~10:00(90')	이 동	
10:00	도 착	커뮤니티센터 입구
10:00~10:05(5')	지역현황 등 설명(1층)	카페테리아(이장)
10:05~10:06(1')	이 동(1층 → 2층)	계 단
10:06~10:40(30')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소개(15')>	
	- 홍보관 구성 현황 보고 (4')	폐자원에너지과 장
	- 동영상 시청 (4')	홍천군
	- 홍천 주요시설 보고(모형도) (7')	한국환경공단
	<주민과의 대화(15')>	주민대표 6명
10:40~10:45(05')	이동(홍보관→바이오가스화 시설)	차 량
10:45~10:55(10')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보고(10')>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으로 가스 생산 현황 → 지역주민에 공급 내역	한국환경공단
10:55~11:00(05')	이동(바이오가스화시설→퇴액비 시설)	차 량
11:00~11:10(10')	<퇴/액비 자원화시설 보고(10')> *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하수찌꺼기로 퇴비/액비 생산 → 판매(이수농산 등)	동진CNG 대표
11:10~11:15(05')	이동(퇴액비시설→태양광발전)	도 보
11:15~11:25(10')	<태양광발전시설 보고(10')> * 태양광 발전 현황 및 SK E&S 역할	강원도시가스
11:25~11:30(5')	환송 인사	전 체
11:30~11:45(15')	이 동(행사장→오찬장)	차 량
11:45~13.00(75')	오 찬	샘터골
13:00	환 송	

<붙임 2>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간 운영 성과

### 1. 주민수익 발생 내역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14.5)	실적('15.12~'16.11)	비고
태양광발전	58	87	'16.2월 재산정
난방비 절감	42	49	도시가스 공급
퇴·액비 생산	52	52	예측치('18년부터 주민운영)
소수력 발전	38	26	커뮤니티센터 전력비 절감
그린빌리지	-	2	
퇴비 무상공급	-	9	
카페테리아	-	9	
총계	190	234	

#### □ 사업별 내역

##### ○ 태양광 발전

구분	계 획	실 적	비고
발전수익(백만원)	58	87	33.3% 증
발전량(MWh)	426	445	5% 증

- (증가사유) 시설 설치 초기로 발전효율이 높아 발전량이 증가하였고 운영비 감소 등으로 마을 실 수익 증가

##### ○ 주민 난방비 절감(도시가스 사용)

구분	계 획	실 적	비고
절감액(백만원)	42	49	

- (증가사유)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당초 46가구에서 54가구로 증가

\* 91만원/년/가구(125만원 - 43만원)×54가구 ≒ 49백만원/년

○ 소수력 발전 (커뮤니티센터 전력비 절감)

구분	계 획	실 적	비고
전력비 절감(백만원)	38	26	
발전량(MWh)	198	134	

- (감소사유) 당초 25kW/h, 방류량 16,000m<sup>3</sup>/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시 낙차고도 등을 고려 발전용량 17kW/h로 축소,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1,000m<sup>3</sup>/일→16,000m<sup>3</sup>/일)로 방류량 부족 등으로 발전량 저하

○ 기타

- (그린빌리지) 총 12가구로 가구당 약 17만원/년 절감
- (퇴비공급) 4,400포대×20kg×2,000원 = 8,800,000원 ≒ 9백만원  
 ※ 퇴비단가 약 2,000원/포 (정부지원금 적용)
- (카페테리아) 커피 등 음료, 과자, 특산품 판매 수익

2. 기타 효과

□ 인구증가

구 분	선정시(2014.5)	준공시(2015.12)	현재(2016.11)
가구수(가구)	57	70	69
주민수 (명)	119	139	145

□ 일자리 창출

시설명	채용인원	주요 업무	비고
마을영농조합	2	영농조합 총괄 및 경리	
카페테리아	1	카페운영(1)	
홍보관	1	해설사(1),	
퇴·액비지원화 시설	4	소방(1),안전(1),전기(1),기계(1)	
계	8		

□ 방문객 증가(월별 방문객수,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996	132	3	398	185	246	399	752	176	449	534	450	272

<붙임 3>

## 2016년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가. 강원도 인제군

###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발전 폐열 공급배관 설치(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시설(48톤/일) → 발전 폐열(온수) 공급 배관 → 온실·육묘장·건조장에 열원 공급</li> </ul> </li> <li>◆ 발전 온수를 활용한 온실·육묘장·건조장 설치(38.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프리카 재배 온실(자동화비닐온실 3,600평)에 난방용 열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2.1억원) : 재배온실 시설 및 내부설비 투자(현물포함)</li> </ul> </li> <li>○ 육묘장·건조장에 난방용 열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0.9억원) : 현물 및 내부설비 투자</li> </ul> </li> </ul> </li> </ul>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토펜션(기존 주민협의체 운영)에 태양열 보일러(온수 공급) 설치(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1.5억원) : 현물(토지) 투자</li> </ul> </li> </ul>
문화/관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제군 내 월학리 들꽃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재배온실 견학 및 재배농산물/지역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li> </ul> </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온실 농작물 판매수익 및 난방비 절감 : 4.7억원/년</li> <li>◆ 육묘장·건조장 농산물 판매수익 및 난방비 절감 : 3.6억원/년</li> <li>◆ 황토펜션 운영수익 및 난방비 절감 : 0.5억원/년</li> </ul>

### □ 세부 사업내역

(금액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주민투자	합계
소각 발전폐열 공급배관	2.0	2.0	-	4.0
발전폐열 활용 농작물 재배 온실	18.0	18.0	2.1	38.1
육묘장·건조장	1.0	1.0	0.9	2.9
농산물 전시판매장	0.5	0.5	-	1.0
황토펜션 내 태양열 보일러	0.5	0.5	1.5	2.5
설계비 등	4.0	4.0		8.0
계	26.0	26.0	4.5	56.5

##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정책결정-집행-평가 및 환류 과정에 청년 참여 제도화>

- 12.23(금),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12월 23일(금)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금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 그간 패널로만 참여하였던 청년대표들을 신규 정식위원(5명)으로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직접 참여를 강화하였다.
  - \* 위원수 증원(20명→ 25명이내), 산하 전문위원회(2개) 신설
  - 동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7대 정책 분야별로 27개팀 178명(멘토 27명, 팀원 151명)
- 우선,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 내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과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직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한 조기 진로설정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1만→ 5만) 등을 통한 취업·장기근속 지원 등 청년들의 진로지도·취업준비 지원 강화에도 힘쓰며,

-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규도입 및 대학창업펀드 신설 등을 통해 창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체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 우선채용을 확행해야 함과,
  -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서도 조속히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에서도 1기업에서 1명의 청년이라도 더 채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중소기업이 '갈 만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동시장 내 격차완화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 강화를 통해 취약한 청년계층에 대한 정책 수혜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되었다.
- 아울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16.1~11월 평균)를 기록하고 20대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1만6천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여억원의 조기집행 및 사업성과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고용상황에 민감한 청년, 저소득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직접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의견 등을 제시한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 동 정책참여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청년정책 방안이 몇 가지 소개되었다.
  -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검색, 훈련참여·신청, 창업지원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파악·지원할 수 있는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 훈련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통합관리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 병무청-고용부-육군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제'와 관련하여, **특기병과 및 참여대상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복무 후 취업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련-군복무-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로를 마련할 것이 제안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금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안 내용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는 한편 쟁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전담팀 지정 등을 통해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청년의 눈높이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전문가 등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격차완화 등 청년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례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곧 삶이 되어 버린

현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있는 주체들은 일자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속도감있게 고쳐나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푸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 무엇보다 “그간 패널 자격으로 참석했던 청년대표들이 정식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상시적·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상시적·체계화 시켜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내년에는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 부****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개요**

- 일시: '16.12.23(금), 14:30 ~ 16: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02-2001 - 7651
- 참석: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21명
- 안건(총 3건)
  -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보고
  -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결과 및 정책제언 심의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후속조치 계획 보고
- 세부일정 \* 전체 일정 취재기자단에게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개회 및 참석자 안내	사회: 이대형 사무관
14:35~14:40	5'	장관님 인사말씀	
14:40~14:55	15'	① '17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청년고용기획과장
		②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결과 및 정책제언	
		③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후속조치 계획 보고	고용문화개선과장
14:55~15:55	60'	토 론	장관님 주재
15:55~16:00	5'	장관님 마무리말씀	

- **[구성]**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22개 부처 97개 정책 등에 대해 7대 정책 분야\* 27개 팀으로 나눠 청년고용정책의 미비점 발굴, 개선의견 등 도출
  - 모니터링은 1차(전수)·2차(심층)로 나누어 추진되었고, 건의내용에 대해 홍보 및 안내강화, 지원내용 내실화 및 지원기관 역량 강화 등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
    - \* 홍보 및 안내강화, 지원내용 내실화 및 지원기관 역량 강화, 전달체계 내실화, 정책운영 책임강화 등
- **[홍보 및 안내]** 홍보방식에 있어 일부 사업들은 웹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 일원화된 홍보채널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홍보대상의 다각적 확대 필요성 등도 제시
- **[지원내용 및 지원기관 역량]** 정책별로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크고, 지원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 유사정책을 통합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교육내용의 수준 및 범위를 다각화, 위탁운영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 등이 방안으로 제시
- **[전달체계]** 정보의 부정확성 및 표준화된 통합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현실에 대해, 위탁운영기관 상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 **[정부 정책 운영]** 청년 일자리 정책이지만 일반사업 내 청년이 극소수 포함된 경우,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훈련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가 낮은 경우,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 이라는 건의에 대해
  - 훈련사업의 부처간 협업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훈련 후 고용·양질의 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

**참고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2	사업주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3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재희
4	학교 교육 협의회	전국공업계고교장협의회	회장	이효환
5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	회장	위성욱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보은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전찬환
8	정부 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9		교육부	차관	이 영
10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12		중소기업청	청장	주영섭
13	민간 전문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
14		커리어컨설턴트협회	회장	황은미
15		부경대학교	교수	류장수
16		구미대학교	교수	김금숙
17	청년 위원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
18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손한민
19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20		청년이 만드는 세상	대표	조승수
21		키다리은행	은행장	한하원

## 인천광역시 등 3개 지자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최우수기관 선정

- 2016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 및 사례 발표 -

■ 243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 27개 선정

- 올 한 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폭력예방활동이 전개된 가운데, 지역안전망 구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2월 16일(금) 오후 2시 30분 쉐라톤서울 팔래스(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소재)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다양한 폭력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인천광역시 등 20개 지자체와 7개 민간기관을 시상한다.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역사회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경찰·사법·의료기관 및 아동·여성보호시설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총 243개 구성

- 우수기관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검지표에 따라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243개 지역연대가 1년 간 추진한 실적을 심사한 결과 결정됐다.
- 심사 결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경상남도 함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지역연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그밖에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등 11개 기관(지자체 4개, 민간기관 11개)이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다.

- ▲ 지역연대 최우수기관(3개) : 광역(인천광역시), 기초(서울 양천구, 경남 함안군)
- ▲ 지역연대 우수기관 (13개) : 광역(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기초(대전 대덕구, 인천 강화군, 경기 안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부산 해운대구, 경남 고성군, 광주 북구, 부산 연제구, 경북 청도군, 인천 계양구)
- ▲ 지역안전프로그램 우수기관 (11개) : 충청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부산여성회, 인천 YWCA,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광주여성민우회

- 우수 지자체들은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연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 인천광역시는 관내 우범지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수호기사단’이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펼치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안심드림(Dream) 인천 조성’을 목표로 지역 내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민관 참여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에 대한 조사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교체를 적극 추진해 지역 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 경남 함안군은 자체 안전사업인 ‘마을 지킴이’와 연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의 우려가 있는 아동·여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지역안전프로그램 우수기관은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함께 선정했다.

- 충청남도과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는 ‘안전지킴이’ 활동가를 양성해 9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녀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체계를 구축해 안심귀가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경상북도와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여성·아동 안전 강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 내 고위험군 지적 장애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73명의 안심귀

가활동가들과 60명의 안전순찰 활동가들이 안심귀가 및 안전순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 **전라남도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의 ‘활기·매력·온정으로 뭉치고(Go)’**는 지역 내 도서벽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체계를 구축하고, 등대지기단의 야간순찰 실시, 주민참여 서약서,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높인 노력이 돋보였다.

□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 지역사회의 연대와 민관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우수사례와 추진 성과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고,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각종 안전 위험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폭력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앞으로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우수 안전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1

## 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2016.12.16(금) 14:30~16:25 / 쉐라톤 서울 팰라스(서울 서초구)
- 내용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참석자 : 243개 지역연대 담당공무원, 안전프로그램 수행단체 등 관계자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시상식	14:30~14:35	5'	개회사, 국민의례	
	14:35~14:45	10'	지역연대(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심사 보고	
	14:45~14:50	5'	격려사	여성가족부 장관
	14:50~15:20	30'	우수기관 시상(27점) - 종합평가 우수기관(7점) - 사례평가 우수기관(9점) - 지역안전프로그램 우수기관(11점)	여성가족부 장관
	15:20~15:50	30'	휴식	
사례 발표	15:50~16:00	10'	동네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안심 골목 프로젝트2	광주광역시
	16:00~16:10	10'	우하하 마을지기 여성·안전사업	부산광역시
	16:10~16:20	10'	아동여성안심 GREEN ZONE + 엄마 MOM	충청남도
	16:20~16:25	5'	폐회	

□ <종합평가> 지역연대 운영 우수기관

연번	구분	지자체	주요내용
1	최우수 (3)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아동이 안전한 ‘안심드림(Dream)인천 조성’을 목표로 지역 내 20개 기관(여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예방기관·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li> <li>- 관내 기초지역연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4회 실시)</li> <li>- 관내 우범지역과 밀집지역을 안전수호기사단의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지역연대 참여 유관기관과의 캠페인을 통해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li> <li>- 기초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표준화를 위해 광역 차원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 관련 실무자를 교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지원</li> <li>- 경찰청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콘테스트」와 인천관내 기초 지자체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연계</li> </ul>
2		서울 양천구 <시군구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실무사례협의회 결과를 사후 지도하는 협의회 운영 방식 우수</li> <li>-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li> <li>-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학교주변 위험환경 조사에 민·관 참여</li> <li>- 공간정보 웹에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전·후 사진 게시하여 활용도 제고</li> <li>- 「LED 보안등기구 교체 계획」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연계하여 학교주변 위험 환경 개선</li> </ul>
3		경남 함안군 <시군구농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단위 기초지역연대로 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연대사업을 우수하게 운영</li> <li>- 실무사례협의회에서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함안군 자체 안전사업인 「마을지킴이」와 연계하여 사례관리</li> <li>-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참여</li> <li>*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사업, 사례관리, 민관합동캠페인, 합동</li> </ul>

연번	구분	지자체	주요내용
			<p>순찰 등 사업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개 학교 초등학생 74명이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참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li> <li>- 아동안전지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우수 소감문과 아동안전지도를 지역주민·청소년들과 공유하고 홍보</li> </ul>
4		<p><b>부산광역시</b> 〈광역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으로서 효과가 큰 홍보사업(CF 제작, 뮤지컬 제작)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우수</li> <li>-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민관 합동 홍보사업 운영 우수</li> <li>- 여성·아동 안심비상벨 기능보강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지원을 위한 현장동행 서비스 사업 등 이전 년도 사업을 수정·보강하여 실시</li> <li>- 2016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정비결과, 사례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배포 및 홍보</li> <li>- 광역 차원에서 아동안전지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구·군내 아동안전지도를 시민에게 홍보</li> </ul>
5	<p><b>우수</b> (4)</p>	<p><b>전라북도</b> 〈광역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사례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개최(10회 실시)</li> <li>- 기초지역연대 부진기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li> <li>- 주민참여 및 피해자 지원체계 홍보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찾아가는 주민센터 간담회 운영</li> <li>- 광역 차원에서 기초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표준화를 위해 자실무자교육, 간담회 개최, 아동안전지도 평가보고회 및 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독려</li> </ul>
6		<p><b>대전 대덕구</b> 〈시군구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사례협의회 및 솔루션 회의를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li> <li>- 아동 통학환경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환경유도 디자인 설치, 아동대상 폭력예방교육사업 등 아동대상 안전사업 실시</li> <li>-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지역연대 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지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안전지도 제작시 현장동행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주변 위험 환경을 인지하고 구와 협력하여 제작 대상 학교 계도활동 전개</li> <li>* 학부모, 구청장-학교장-대덕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 합동 현장조사</li> </ul> </li> </ul>

연번	구분	지자체	주요내용
7		<p style="text-align: center;"><b>인천 강화군</b>  <small>〈산단구농촌형〉</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단위 기초지역연대로 지역연대 사업 전반적으로 충실히 운영</li> <li>- 농촌 맞춤형 대상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내 폭력 예방 활성화</li> <li>- 체계적인 사업수행 계획과 점진적인 사업추진(비상벨, 보안등 설치, 안심택배함 운영)</li> <li>- 5개교 초등학생 총 101명이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참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안전지도 전시회 개최, 디지털아동안전지도 리플릿 제작·배포 통한 아동안전지도 홍보</li> </ul>

□ <사례 평가> 분야별 우수기관

연번	부문	지자체	주요내용
1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3)	경기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사례협의회 체계적인 운영 및 회의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우수</li> <li>* 피해자에 따른 참여기관의 유연성 및 참여기관의 사안 확인, 위험성 평가, 대응조치 등 사안에 대한 경중과 처리에 대한 사전 설정 우수</li> <li>- 실무사례협의회(총 7회)의 취지, 피해자 지원 방향, 이전 사례 협의 경과를 사후지도(follow up) 하는 운영방식 및 내용 우수</li> </ul>
2		경남 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사례협의회 체계적인 운영 우수</li> <li>* 마을지킴이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이후 실무사례협의회 피해자 지원과 연계(피해자 주거환경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운영) 우수</li> <li>- 지역연대 참여 유관기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기관 참여와 이들 기관의 전문성 보장 및 적극적 활용</li> </ul>
3		경남 남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사례협의회 체계적인 운영 우수</li> <li>* 엄마품지킴이단의 대상자 발굴(및 추후 지원), 이를 실무사례 협의회와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li> <li>- 이전 실무사례협의회 사례협의 경과를 사후지도(follow-up)하는 실무사례협의회 운영방식 우수</li> </ul>
4	교육 및 홍보사업 (2)	부산 해운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교육·홍보사업 우수</li> <li>* 해운대 해수욕장 폭력예방 캠페인, 여름철 여성청소년 바다 상담소 운영</li> <li>- 합동 캠페인과 같은 홍보사업 운영 시 지역연대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 우수</li> <li>* 지역연대 유관기관 필수 참여 및 자원봉사단체 등 다수 참여</li> </ul>
5		경남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학교, 공무원 대상 교육만이 아니라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등 교육 대상의 다양화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 변화 우수</li> <li>- 단순 홍보에서 벗어나 안전, 인권을 연결한 홍보 실시 우수</li> <li>- 군 단위 기초지역연대로 우수한 폭력예방 교육사업 및 홍보 활동을 지역연대 내 유관기관과 자체단체 여러 사업들과 연결 우수</li> </ul>
6	안전사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사업을 장</li> </ul>

연번	부문	지자체	주요내용
	(3)	청도군	애인 여성 가정이라는 특화된 대상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우수. 군 단위 기초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사업 시도 자체가 의의
7		광주 북구	- ‘함께 만들어요, 폭력 없는 안전한 북구’ 사업으로 옐로카펫 설치(횡단보도 주변 황색노면표시제를 사용하여 구별된 공간 구성, 태양광 램프부착), 도와중(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비콘 설치, 아동 등굣길 도우미 사업, 주부 순찰단 운영, 공개(폐가) 정비 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우수
8		부산 연제구	- 유동인구와 범죄발생 고려 여성안심벨 Help-me 운영 (3개소 8대) 우수 - 여성서포터즈 연제랑의 우리마을 안전지킴이활동으로 지역 안전 증진에 기여(수시개인별 순찰 및 합동 순찰 연 1회, 모니터링 활동보고 총 208명 92건, 주 2회 2인 1조 안심 비상벨 점검)한 점이 우수
9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1)	인천 계양구	- 지역사회 구성원(경찰관, 구청직원, 여성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여 안전지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도 제고 - 우수학교 표창을 통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전시회 개최로 아동안전지도 활용 능력 증대 - 위험환경 개선 12건(비상벨 일제 점검, CCTV 및 비상벨 설치, 신호등 설치, 폐가 관리, 안전울타리 관리 등) 실적 우수

## 에너지 걱정없는 쾌적한 마을·학교만들기 본격화된다.

- 경기도 신청사·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선정,  
에너지자립학교 2개소 협업 지원사업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경기도)와 「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행복청·LH)를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서울 공항공고등학교와 충남 정산중학교를 ‘제로에너지빌딩 협업 지원사업’(국토부-교육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

외벽, 창호, 바닥 등의 단열·기밀성능 향상과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한 건축물



-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 중심의 저층형(7층 이하)과 고층형(8층 이상) 시범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 전력거래·에너지그리드 등 마을 규모에서 제로에너지 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대규모·복합용도의 종합적인 사업을 단지형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선정위원회의 심의(11~12월)를 거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와 '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를 단지형 시범사업으로 선정

-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본청사·의회청사(지하주차장 포함) 부분을

우선 건설하고, '20년까지 경기도시공사·도서관 및 관련 업무시설 등의 건축·개발을 완료하는 융·복합사업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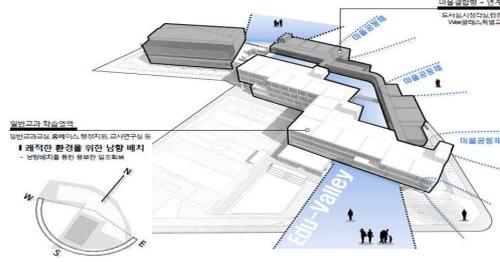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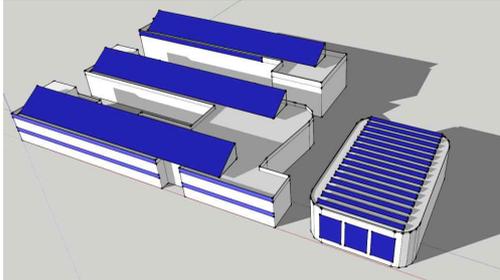
- 지열·태양광설비 등을 통한 개별 청사의 제로에너지 구현은 물론,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등)와 연계하여 에너지자립율도 높여갈 계획이다.
- '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사업'은 에너지그리드 인프라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 내 에너지 자립은 물론 향후 도시 간 에너지거래를 염두에 둔 미래형 건축·도시 구축사업으로서,
  -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차별화하여 제로에너지에 특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제로에너지 선도구역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제로에너지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 기반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의 에너지자립학교를 제로에너지빌딩 협업 지원사업으로 지정했다.
  - 도심형 고교(공향고), 기숙형 학교(정산중) 등 각 학교의 특성 및 지역조건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성능 구현을 통해 찜통·냉골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 에너지교육·연구모델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단지형 시범사업과 에너지자립학교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설치보조금 지원\*, 용적률 15% 상향 등 포괄적인 지원이 우선 제공될 예정이며,
  -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보조금(설치비의 30~50%, 공공건

축물의 경우에는 의무 비율 초과 부분 대상) 지원(산업부)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등 **체계적 관리도 지원**받게 된다.
  - 또한, **시범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단지형 시범사업은 대규모·복합용도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포함한 **미래 건축·도시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와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참 고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현황

단지형	사업개요	사업구상안
<p>경기도 신청사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p>	<p>(선정사유) 경기도내 타운형 개발 사업으로 도청, 도의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 경기도서관 등을 확대 개발하는 복합형 사업으로 지열 및 태양광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옥상녹화, BEMS 도입하여 에너지자립형 기술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18,218㎡</li> <li>· 층수 : 도청(B4~22F), 도의회(B4~2F)</li> <li>· 동 : 2동(도청, 도의회)</li> <li>· 연면적 : 236,140.33㎡</li> <li>· 용적률 : 62.762%</li> <li>· 추진일정 : 설계완료('16.12) → 착공('17.下) → 준공('20)</li> </ul>	
<p>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사업 (세종시 합강리/ 행복청·LH)</p>	<p>(선정사유) 행복도시 5-1 생활권에 대한 제로에너지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으로 지구단위 내에서 건축하는 주거용·상업용·공공건물에 대해 녹색건축 기술, 스마트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간 에너지 수요와 공급량을 Net Zero 수준에 맞추는 복합도시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세대수 : 5-1 생활권(주거용, 상업용, 공공 시설 대상)</li> <li>· 대지면적 : 2,741,213㎡</li> <li>· 추진일정 : 지구단위계획 공모('17.上) → 지구단위계획 수립('18.上) → 실시설계 및 착수('19.上) → 단계적 토지분양 및 조성공사('20)</li> </ul>	
<p>저층형(대체)</p>	<p>에너지자립 학교(교육부 협업 지원사업)</p>	
<p>공 학교 (서울 강서구/ 서울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3,390㎡</li> <li>· 연면적 : 13,276㎡</li> <li>· 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li> <li>· 학급수 : 33학급(990명 규모)</li> <li>· 추진일정 : 설계완료('17.上) → 착공('17.下) → 준공('18.2)</li> </ul>	
<p>정산중 (충남 청양/ 충남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36,500㎡</li> <li>· 연면적 : 9,920㎡</li> <li>·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li> <li>· 학급수 : 7학급(129명 규모)</li> <li>· 추진일정 : 설계완료('17.1) → 착공('17.上) → 준공('18.2)</li> </ul>	

\* '14년 지정한 5개 저층형 시범사업 중 1개 사업(서울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이를 교육부 협업 지원사업으로 대체

## 속초 대포항, 동해안권 거점어항으로 육성

- 3년간 245억원 투자...친수관광기반시설 확충, 안전 어항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강원 속초시 대포항을 동해안 관광과 어업의 중심이 되는 거점어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포항 정온도\* 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를 이번 달 3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온도 : 기상악화 시 대포항 내 파고가 0.6m이하인 잔잔한 수면 상태

\*\* 발주청/ 시공사/ 감리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삼건사/ (주)한국항만기술단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대포항은 인근에 설악산,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한 천혜의 관광지이며, 오징어와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친수공간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태풍 시 소형어선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시설 보완요구가 있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9년까지 국비 245억원을 대포항에 투자하여 관광시설과 어업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변무대와 해상분수,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어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파제제\*, 돌제\*\*, 연결교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파제제 :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 파랑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

\*\* 돌제 : 소형어선 접안 등을 위해 해안에서 직각방향으로 시설되는 구조물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대포항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와 어업활동 편의

제공으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대표항이 해양관광과 어업이 결합된 거점 어항이 되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 대포항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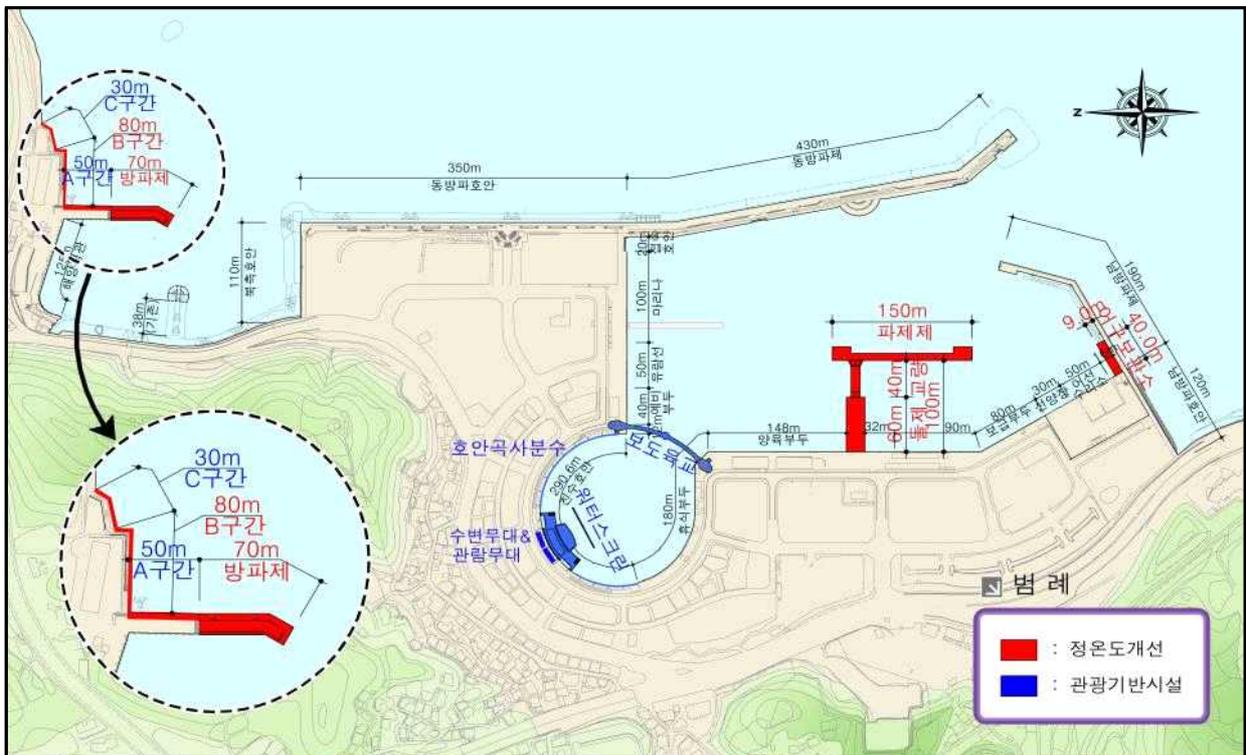
### □ 공사개요

- 총공사비 : 24,525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16~'19)
- 사업규모
  - 정온도개선(파제제 150m, 돌제 60m, 연결교량 40m, 방파제 70m 등)
  - \* 정온수역 : 기상악화시 항내파고가 0.6m이하인 잔잔한 수면
  - 관광기반시설(수변무대 1,300㎡, 보도육교 103m, 해상분수 1식 등)

### □ 개발연혁

- 1971 : 국가어항 지정
- 2013 : 대포항 개발사업 준공
- 2016. 7 : 대포항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12 : 공사 착공(예정)

### □ 계획 평면도



□ 조감도

